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CYS-Net)에 대한 정책수행주체의 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김동일(金東一)** · 최수미(崔秀美)*** · 김동민(金東敏)**** · 구본용(具本勇)*****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주체들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CYS-Net 정책 수행에 참여하는 수행주체들의 CYS-Net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과 CYS-Net 정책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태도단계를 알아보고, 「CYS-Net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따른 수행주체들의 태도단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며,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태도측면에서도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단계를 나타내었고, 긍정적인 집단은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상위 단계를 나타내었고, 부정적인 집단은 양극화된 태도단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CYS-Net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어 : 위기청소년, CYS-Net, 태도단계

* 본 연구는 2007년 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됨.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참여교수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참여연구원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I. 서론

IMF 이후 이혼 등 가족해체 현상의 가속화로 가정, 학교 등 청소년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의 붕괴가 심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At-Risk Youth)들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이 7만여 명, 가출청소년이 1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등 위기 청소년의 규모가 전체 청소년 인구 중 약 17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윤철경, 2005). 위기 청소년(At-Risk Youth)이란 용어는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1983)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두되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그 후 OECD(1995)가 위기 청소년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면서, 최근 위기청소년이란 용어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용어로 활용되고 있다(윤철경,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이 나타내고 있는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해짐과 동시에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들이 나타내는 문제행동들로는 가출, 비행, 성폭행, 자살, 약물중독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위기 문제들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 각 부처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공동생활 가정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부적응 및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보호 및 재활을 목표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위기청소년정책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통합기관의 부재, 그리고 부처별 연계성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업무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위기청소년 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위에서 언급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정책적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최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Community Youth Safety Net : 이하 CYS-Net)이라고 하는 위기청소년 안전망 지원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지역사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CYS-Net)란, 시도, 시군구 등 일정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 및 활동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청소년지원체제로서, 물리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직접 다가가며(Out-reach), 내용면에서는 여러 위기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한편, CYS-Net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HUB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그동안 사후개입적인 상담지원정책에서 적극적이고 사전 개입을 통한 예방정책 수행 기관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으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정책 수행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동시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원들에게 기존의 상담정책에서 요구되었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개인의 심리 및 행동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공되었던 사후개입적인 상담적 개입방식에서 개인 내적인 문제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 개입을 통한 예방적 상담서비스 제공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지원 정책 방향 및 정책 수행 주체인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갑작스런 변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전달, 그리고 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수행주체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수행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그들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은 정책수행에 대한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Kavale & Forness(2000)에 의하면, 정부의 혁신 사업에 동참하는 전문 인력의 태도는 정책수행에 대한 행동을 예언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태도는 매우 중요하고 더 나아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또한, 태도의 변화와 동시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수행주체들의 태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Mamlin 등(1999)은 당시 미국 정부의 혁신 과제였던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한 고등학교의 실패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동의나 준비 없이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책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책에 대한 수행주체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Fuller(1969)는 개인, 업무, 효과에 기초한 태도단계 개념을 소개하였다. 또한, Hall, Wallace, Dossett(1973)은 Fuller의 개념을 더 세분화시켜 7단계 발달적 과정으로 태도단계를 세분화하였고, Hall(1976)은 7가지 태도 단계의 명칭을 인식

(awareness, 0단계), 정보(Information, 1단계), 개인(Personal, 2단계), 실행방법(Management, 3단계), 실행효과(Consequence, 4단계), 협력(Collaboration, 5단계), 대안(Refocusing, 6단계)으로 수정하였다. 태도의 각 단계는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개인수준의 관심(Self : 0,1,2단계),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관심(Task: 3단계), 수혜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Impact: 4,5,6단계)으로 범주화하였다(Hall, 1976).

위의 주장에 근거하여, CYS-Net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원들이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정책수행주체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주체들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CYS-Net 이라고 하는 국가 혁신정책에 대한 정책수행주체들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서, 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및 태도단계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에 따라 「CYS-Net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CYS-Net 정책 수행주체에 따른 태도 단계를 알아보고, 정책수행주체에 따라 단계별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CYS-Net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따라 정책 수행주체들의 단계별 태도의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6개 시도의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명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현재 CYS-Net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37개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급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실시 및 회수는 2006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대상별로 설문 실시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경우, 각 지역의 상담학 교수를 설문 면접 위

원으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면접위원이 직접 해당지역 담당공무원들에게 전화연락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면접조사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여 면접이 허락된 경우, 약속을 정해 직접 찾아가 설문지와 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CYS-Net을 추진하고 있는 1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37개 거점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로 설문의 취지 및 설문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첨부하여 설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메일을 발송한 후, 총 53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직접 전화를 해서 설문협조를 촉구하였고, 이메일과 우편으로 설문결과를 수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검사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1명이 결과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와 같다.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28.4%, 여성 63.0%로 나타났다. CYS-Net 사업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3.6%,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원이 86.4%로, 이중 상담팀장급 이상이 28.4% 선임상담원이하 상담원급 58%가 포함되었다. 최종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이 23.5%, 석사 59.3%, 박사 7.4%로 석사학위를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배경변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3
	여	51
	무응답	7
사업수행주체	지자체공무원	11
	상담팀장이상	23
	선임상담원이하	47
최종학력	대졸	19
	대학원졸(석사)	48
	대학원졸(박사)	6
	무응답	8
전체	81	100.0

2. 조사도구

본 설문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인구학적 변인, 정책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 및 정책의 비전, 철학 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내용, SoCQ(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를 활용한 CYS-Net 수행주체들의 태도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혁신과제인 CYS-Net 정책 및 정책의 비전, 철학 등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상담전공 교수 2인과 박사과정생 1인이 포함된 연구자들이 직접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질문지는 교육상담전공 교수 1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의 소장 2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질문지의 하위 문항으로는 CYS-Net 사업에 관한 인식, 사업의 효율성, 정책에 대한 신뢰성,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로 구성되었고, 응답범위는 1-7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4점이 중간점수에 해당한다. 이 질문지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8로서, 내적일치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2) CYS-Net에 대한 태도단계 질문지(Stages of Concern Questionnaire: SoCQ)

CYS-Net 추진 구성원들의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로서, Hall, Wallac, Dossett(1986)이 Fuller의 모델을 기반으로 교육기관 안에 유입되는 혁신(innovation)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태도단계질문지(Stage of Concern Questionnaire: SoCQ)를 나재선(2004)이 번안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원검사 매뉴얼에서 제시한 '혁신(innovation)'이라는 용어를 'CYS-Net(지역사회 위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으로 대치하였다. CYS-Net으로 용어가 대치된 질문지는 교육상담전공 교수 2인과 박사과정생 1인을 중심으로 내용의 적절성, 설문문의 의미 간 일치성을 중심으로 수정과정을 거쳤다.

SoCQ는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 태도영역은 인식(Awareness), 정보(Information), 개인(Personal), 실행방법(Management), 실행효과(Consequence), 협력(Collaboration), 대안(Refocusing)으로 총 7가지 태도 단계로 되어있다. 각 단계는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개인수준의 관심(Self: 0, 1, 2단계), 새로운 제도의 업무에 대한 관심(task: 3단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impact: 4, 5, 6단계)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7단계 하위 태도 영역은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는 1(무관)에서 7(정말 그렇다)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자신의 태도 강도를 평정하고, 5문항의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하위단계별 태도 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생각해본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0의 표시는 일련의 연속선상에서가 아니라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단계의 점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35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SoCQ에 대한 Cronbach's α 는 .86으로 문항전체적인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위단계별 신뢰도 결과는 .62 ~ .80으로 각 단계별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SoCQ 하위단계별 신뢰도(Cronbach's α)

	하위단계						
	0 (인식)	1 (정보)	2 (개인)	3 (실행방법)	4 (실행결과)	5 (협력)	6 (대안)
Cronbach's α	.80	.60	.77	.65	.74	.78	.66

III. 연구결과

1.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

수행주체별 CYS-Net 사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표 3>.

<표 3> 수행주체별 CYS-Net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N	평균(표준편차)	F
지자체공무원	11	4.44(1.25)	.25
팀장이상급 상담직	23	4.35(1.28)	
선임이하급 상담직	47	4.20(1.01)	
전체	81	4.28(1.12)	

「CYS-Net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대해 수행주체들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M=4.44), 그 다음으로 팀장 이상급 상담직(M=4.35), 선임 이하급 상담직(M=4.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집단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5, p > .05$). 따라서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은 CYS-Net 정책 및 정책의 비전, 철학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2. CYS-Net 정책에 대한 정책 수행주체들의 태도

1) CYS-Net에 대한 SoCQ 하위단계별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CYS-Net에 대한 정책수행주체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SoCQ의 하위단계별 평균 및 표

준편차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CYS-Net 정책수행주체들의 태도단계 중 높게 나타난 태도는 4단계(실행효과1), 5단계(협력2)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CYS-Net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들의 태도가 대체로 상위 태도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SoCQ 하위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 (n=81)

	하위영역						
	인식	정보	개인	실행방법	실행효과	협력	대안
평균 (표준편차)	2.36(1.00)	4.80(.95)	4.98(1.07)	4.11(1.09)	5.40(0.95)	5.41(0.90)	4.58(0.90)

이는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의 관심의 초점이 CYS-Net이라고 하는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 인식 등을 넘어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이러한 정책의 실행이 위기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상위의 태도단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2단계(정보), 3단계(개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높기 때문에 막연히 CYS-Net에 대한 인식 수준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새로운 혁신 제도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혼란스러워 하며,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상과 책임 문제에 관심이 높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CYS-Net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수행주체들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행 내용과 정책 수행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CYS-Net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정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내 각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행주체들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 CYS-Net 정책수행주체에 따른 SoCQ단계별 태도 차이

CYS-Net 정책 수행주체별 태도 단계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정책수행주체들 모두 0단계(인식)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계에서 대체적으로 4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 1) 4단계 실행효과(consequence) 단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 범주 안에서 위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위기 청소년들에게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위기 청소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 2) 5단계 협력(Collaboration)단계는 사람들이 CYS-Net을 적용하는데 동료들과 협력, 협동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과 선임이하급 상담직은 4단계(실행효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팀장이상급 상담직은 5단계(협력)단계의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한편, CYS-Net 정책 수행주체에 따른 SoCQ 단계별 태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행주체별 전체 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2.34, p > .05$). 하위 단계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태도 단계에서는 정책수행주체들의 단계별 태도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3단계(실행방법)에서는 팀장이상급 및 선임이하급 상담직의 평균에 비해 지자체 공무원의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5.69, p < .01$). 사후검정을 실시해본 결과, 지자체 공무원과 상담직(팀장이상급, 선임이하급 각각)과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담직간 즉, 팀장 이상급 상담직과 선임상담 이하급 상담직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통해, 정책수행주체들 모두 CYS-Net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여부 결정에 대

<표 5> CYS-Net 사업수행주체에 따른 SoCQ 단계별 태도 차이 (n=81)

태도단계	구분	N	평균(표준편차)	F
인식	지자체공무원	11	2.04(.69)	.73
	팀장이상	23	2.35(.97)	
	상담원이하	47	2.44(1.08)	
정보	지자체공무원	11	4.94(1.31)	.14
	팀장이상	23	4.79(.91)	
	상담원이하	47	4.76(.90)	
개인	지자체공무원	11	4.63(1.13)	.82
	팀장이상	23	5.13(1.05)	
	상담원이하	47	4.98(1.06)	
실행방법	지자체공무원	11	3.23(.96)	5.69**
	팀장이상	23	4.50(.85)	
	상담원이하	47	4.12(1.12)	
실행효과	지자체공무원	11	5.47(1.25)	.31
	팀장이상	23	5.53(.97)	
	상담원이하	47	5.34(.89)	
협력	지자체공무원	11	5.25(.86)	1.33
	팀장이상	23	5.66(.99)	
	상담원이하	47	5.32(.85)	
대안	지자체공무원	11	4.40(.86)	2.88
	팀장이상	23	4.95(.76)	
	상담원이하	47	4.44(.93)	

** $p < .01$

한 관심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내용과 역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등 CYS-Net 정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수행주체들 중 CYS-Net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상담직에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정보 및 자원의 활용 등의 실행 방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CYS-Net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따른 SoCQ 단계별 태도 차이

기존의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긍정-부정의 단선적인 측면에서 태도를 평가하는 것에 근거하여(박화문, 손상희, 2000; 권순항, 이규식, 2000), 본 연구는 정책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평균점수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 집단으로 나눈 후,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른 단계별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표 6>.

먼저,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의 평균을 통해 단계별 태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CYS-Net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4단계(실행효과), 5단계(협력)의 상위태도단계의 평균이 대체적으로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2단계(개인), 5단계(협력)의 평균이 높게 나왔고,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5단계(M=4.92)보다 2단계(M=4.95)의 평균이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표 6> CYS-Net 정책에 대한 합의정도에 따른 SoCQ 단계별 태도차이

태도단계	구분	N	평균(표준편차)	t
인식	부정집단	37	2.94(1.07)	5.36***
	긍정집단	42	1.86(0.62)	
정보	부정집단	37	4.83(0.85)	0.46
	긍정집단	42	4.73(1.04)	
개인	부정집단	37	4.95(1.02)	0.92
	긍정집단	42	4.93(1.09)	
실행방법	부정집단	37	4.40(1.01)	2.54**
	긍정집단	42	3.80(1.09)	
실행효과	부정집단	37	4.97(0.92)	4.12***
	긍정집단	42	5.79(0.84)	
협력	부정집단	37	4.93(0.81)	4.98***
	긍정집단	42	5.82(0.78)	
대안	부정집단	37	4.29(0.87)	2.93***
	긍정집단	42	4.84(0.82)	

** $p < .01$, *** $p < .001$

또한, 「CYS-Net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따른 단계별 태도에 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0단계(인식), 3단계(실행방법), 4단계(실행효과), 5단계(협력), 6단계(대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_0 = 5.36, p < .001$; $t_3 = 2.54, p < .01$; $t_4 = 4.12, p < .001$; $t_5 = 4.98, p < .001$; $t_6 = 2.93, p < .001$). 각 집단의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CYS-Net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0, 1, 2단계 즉 정책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자신이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정책 수행을 위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혼란스러워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집단은 자신에 대한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야하는지 등에 관한 상위의 태도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V. 논의 및 결론

정부의 혁신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행주체들 간의 합의 및 새로운 정책이 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수행주체들의 태도변화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CYS-Net 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책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행주체들의 태도단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YS-Net 정책이 기존의 상담정책과는 다른 패러다임과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인해 정책수행주체들의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이 비호의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CYS-Net 정책 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일거라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CYS-Net 정책에 대한 전체 수행주체들의 태도단계는 대체로 상위 태도단계를 나타냈다. 즉 이것은 CYS-Net에 대한 정책수행주체들의 태도가 개인적인 수준과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새로운 제도가 위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법 모색을 위한 노력, 그리고 연계기관들과의 협력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수행주체들은 상위단계로의 태도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YS-Net 정책 수행주체별 태도 단계 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CYS-Net 정책 수행주체들 중, 팀장 이상급 상담직이 CYS-Net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위 태도단계에 초점화되어 있었다.

셋째,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단계별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집단은 상위 태도단계를 나타내었고, 대체로 일치된 경향성을 나타낸 반면,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집단은 2단계(정보)와 5단계(협력)로 양극화된 태도단계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CYS-Net 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에 대한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안의 모색과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CYS-Net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정부의 혁신정책 중 하나인 CYS-Net에 대한 정책수행주체들의 태도를 단순한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7단계의 세분화된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고, 수행주체별 태도단계를 보여줌으로써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급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태도단계(Stages of Concern)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변화를 독립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여 태도의 현재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태도변화를 위한 지속적 동기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CYS-Net 수행주체들의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의 태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정책에 대한 태도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즉, CYS-Net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변화의 실행과정을 이해하고, 정책수행주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내용 및 방법을 통해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기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포함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가 체계화되고 적절히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교육 및 지원 정책의 성패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문가와 행정지원인력의 열성과 참여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자세하고 미묘한 CYS-Net 운용 과정을 모두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위기 청소년 더 나아가 청소년 교육과 상담을 위한 인적자원 역량의 개발 및 지속적인 참여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동일, 김동민(2006). 정부의 위기청소년지원정책현황과 발전방향 탐색.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 권순향, 이규식(2000). 청각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학교 교사들이 지니는 태도와 행동. 난청과 언어장애. 23(3). 131-157.
- 권해수, 류진아, 장진이(2006).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와 연계한 학교상담모형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나재선(2004). 통합교육에 관한 교사태도 검사지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2007). 위기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상태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2003). 초기 청소년의 위기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12(2), 182-190.
- 박화문, 손상희(2000).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중보·지체부자유아교육. 35. 83-99.
- 윤철경(2005). 위기청소년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성경, 송수민, 이소래(2000). 청소년가출. 서울: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창호, 김택호, 정찬석, 박재연(2005). 특별지원청소년 지원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혜연(2002). 외국의 소외청소년 정책연구.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희정(2002). 장애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태도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유진(2007). 위기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위기개입: 전문 인력 양성교육 자료집.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e, N.(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Fuller, E. F.(1969). Concerns of teaching: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6(2), 207-226.

- Hall, G. E., George, A. A, & Rutherford, W. L.(1986). Measuring stages of concern about the innovation: A manual for use of the AoC Questionnaire. Austin, TX: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The original publication(R&D report no. 3032) in 1979 b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eacher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 Hall, G. E.(1978). The study of teachers' concerns and consequent implications for staff development. Austin, TX: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eacher Educ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 Hall, G. E.(1976). The study of individual teacher and professor concerns about innovation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7(1), 22-23.
- Hall, G. E., Wallace, R. C., & Dossett, W. A.(1973). A developmental conceptualization of the adoption process within Educational Institutions. (Rep. No. 3006). Austin,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eacher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 095 126).
- McWhirter(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elmont. CA: UBrooks/Cole-Thomson Learning.
- Kavale, K. A. & Forness, S. R. (2000). *The Great Divide in Special Education: Inclusion, Ideology, and Research*. In Scruggs, T. E. & Mastropieri, M. A. Eds. Educational Interventions. Stanford, Connecticut: JAI Press Inc.
- Mamlin, N. (1999). Despite Best Intentions: When Inclusion Fail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3(1), 36-49.
- Schroth, G., Moorman, M. A., & Fullwood, H.(1997). Effects of training on teacher' stages of concern regarding inclusion. ED406091.

* 논문접수 2007년 8월 14일 / 1차 심사 2007년 8월 28일 / 2차 심사 2007년 9월 19일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육심리학과에서 학습장애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사업단 참여교수로 있다. 주요저서로는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특수아동상담」, 「ADHD 학교상담」 등이 있다.

* e-mail: dikimedu@snu.ac.kr

* 최수미: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및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원으로 재직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학 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사업단 참여 연구원으로 있다.

* e-mail: sumi0727@snu.ac.kr

* 김동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dminkim@cau.ac.kr

* 구본용: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대학원에서 상담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byco@kangnam.ac.kr

Abstract

Attitudes toward Community Youth Safety Net: With regard to counselors at youth counseling center and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Dongil Kim · Sumi Choi · Dongmin Kim · Bonyong Gu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ground work for bringing about CYS-Net policy executors' actual attitude changes toward the at-risk adolescents support policy. The policy executors' perception with regard to CYS-Net policy was investigated, and their attitude stages in relation to their basic attitude toward CYS-Net policy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toward policy were positive in general, and on the high level of attitude stages. The perception toward CYS-Net policy result in different attitude stages, i.e., the positive perception group showed the high level of attitude stages toward policy and the negative group tended to polarize. The result indicates that in order for the CYS-Net policy to be successfully executed, the policy executors' perception change toward CYS-Net policy are needed, resulting in attitude changes.

Key words: youth at risk, CYS-Net, stages of attitude